

汎國民的 科學技術政策 推進

科學技術處

朴肯植 과학기술처장관은 새해 주요업무보고에서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80년대 경제발전의 진로를 科學技術의 혁신정책에 기초를 두고 실현한 결과, 정부의 확고한 신념과 정책의지를 근간으로 産·學·研의 협동과 호응속에 기술혁신이 전국적으로 심화 확산되었다고 보고했다.

朴장관은 또 이제 과학기술은 활력에 찬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21세기를 향한 기술선진대국의 목표를 실현할 주된 성장 잠재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朴장관이 보고한 제5공화국의 主要治績으로 「법국민적 기술주도정책의 추진과 국민적 합의 형성」에서는 기술진흥확대회의 설치운영으로 과학기술혁신의 정책방향 선정과 분위기를 확신했으며, 기술진흥심의회 설치운영으로 기술혁신의 정책발전과 범부처적 협조태세가 정립되었다고 말했다.

朴장관은 또 과학기술투자의 획기적인 확대와 고급과학두뇌양성부문에서 지난 7년간 과학기술투자규모를 6배이상으로 신장시켰다고 밝히고 투자규모가 지난 '80년 3천억원에서 '87년 2조원(GNP의 2.2%), '91년 GNP의 3%, 2001년 GNP의 5%까지 확대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科技處는 또 지난 7년간 연구개발인력을 3

배 이상 증가시켰다고 말하고 '80년 당시 인구 1만명당 4.8명의 수준이 '87년도에 13.3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그간 과학고등학교를 비롯 과학기술대 설립으로 과학영재 양성체제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활성화부문에서 조세지원과 자금지원('80년 70억원, '87년 6천3백38억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활성화됐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지난 '80년 기업부설 연구소 52개소(2천 50명)에서 '87년도 들어 4백45개소(1만 6천 1백74명)로 크게 늘어났으며, 기업기술개발투자규모는 '80년도 8백14억원(38%)에서 '87년도 1조 2백17억원(67%)대로 크게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朴장관은 또 特定研究事業의 확대추진 방향으로 투자규모를 지난해의 5백50억원 규모에서 금년도에는 6백50억원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보고하고 중점개발과제로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첨단기술개발 △대외기술의존탈피를 위한 당면기술개발 △자원에너지 등 공공복지기술 개발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또 올림픽 지원사업으로 선수약물검사사업과 기상업무지원사업, 올림픽 기간동안의 전산지원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남극과학기지건설과 계속추진사업으로 基礎科學研究所 설립에 관해서도 보고했다.